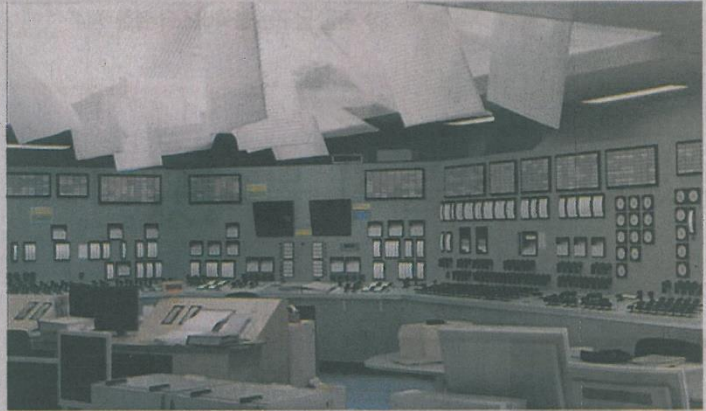


# 실험적이고 스펙터클한 '현대사진의 매력'

November 29, 2011 | 편완식 선임기자

현대사진의 메카인 독일 뒤셀도르프 쿤스트 아카데미 출신 작가인 칸디다 호퍼(Candida Hofer·67)와 토마스 데만트(Thomas Demand·47)의 사진전이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다. 실험적이면서도 스펙터클한 작업으로 현대 사진을 이끌고 있는 이들은 미술시장에서도 점점 역대를 호가하는 작가들이다. 호퍼는 독일의 유명 사진작가 베르트 베허 교수 밑에서 수학했고 안드레아스 구르스키, 토마스 스트루스, 토마스 루프 등과 함께 '베허 학파' 1세대 작가로 불리며 독일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꼽혀왔다. 그는 1970년대부터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교회 등 공적인 건축물의 내부공간을 찍어 왔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언론을 통해 소개된 원전 중앙제어실의 모습을 보고 재현해 낸 토마스 데만트 작품. 조형적인 디테일성이 돋보인다. PKM트리니티 갤러리 제공

## 실험적이고 스펙터클한 '현대사진의 매력'

### 호퍼·데만트 사진전

호퍼 작품 속 공간에서는 사람을 보기 어렵다. "나는 공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곳에 놓인 사물들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간과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를 담아내고 싶다." 작가는 평소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를 골라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을 때 장소의 정체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9년 독일 베를린의 노이에미술관에서 촬영한 작품 12점과 지난해 제작한 수도원 시리즈 중 일부를 선보인다. 노이에미술관은 18년의 건축 기간을 거쳐 1859년 완공된 프러시아 양식의 건축물로,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심하게 파괴돼 60여년간 폐허로 있다가 1997년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에 의해 보수된 이후 2009년 재개관했다. 호퍼는 치퍼필드의 제안으로 보수가 진행되는 동안 미술관 전시장 내부의 총 8곳을 카메라에 담았다. 자신이 전시장의 각 장소를 차를 봤을 당시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고 인위적인 조명을 배제하고 오직 전시장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사진에는 미술관에 남은 전쟁의 상흔과 오랜 세월의 흔적, 보수작업이 진행되면서 변화가는 전시장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눈길을 끄는 작품은 미술관 북서쪽에 있는 8각형 돔으로 이뤄진 홀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그곳에는 절세의 미녀로 유명한 기원전 1340년 고대 이집트의 네페르티티 여왕의 흉상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돔에 설치된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홀 중앙에서 빛나는 네페르티티의 흉상을 보노라면 마치 미술관 속에 들어와 두상과 마주한 느낌이 든다. 12월25일까지 국제갤러리. (02)735-8449

종이로 모형을 만들고 이를 촬영하는 데만트는 뒤셀도르프 아카데미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자신이 봤거나 상상

한 장면을 종이로 이용해 실물 크기로 재현하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뒤 파괴하면서 실재와 허구에 대한 탐구를 계속했다. 조형미술과 사진의 결합이라 할 수 있다. 세계 미술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으면서 2005년 뉴욕 현대미술관과 2006년 런던 서번타인 갤러리, 2009년 베를린 신국립미술관 등 유명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데만트가 종이로 재현해 사진에 담은 공간에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다. 천장이 온통 뜯겨 너털너덜해진 사무 공간을 담은 '컨트롤 룸(Control Room)'이라는 작품은 사실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

### 시간과 사물에 따라 공간 어떻게 변하고 종이로 재현해 담은 공간의 숨은 이야기

시 언론을 통해 소개된 원전 중앙제어실의 모습을 보고 재현해낸 작품이다.

노란색 벽장과 침대, 의자와 장난감이 놓인 모습의 사진은 작가가 생후 6주였던 당시 아버지가 작가의 방을 찍어둔 사진을 보고 종이로 다시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굳이 사진에 얽힌 이야기들을 관객에게 일일이 풀어내려 하지는 않는다.

"예술인으로서 나는 작품의 주제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표현한 것을 관객에게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관객은 작품을 보고 자기만의 해석을 하면 된다." 내년 1월10일까지 청담동 PKM트리니티 갤러리. (02)515-9496



네페르티티 여왕의 흉상과 돔이 어우러진 칸디다 호퍼 작품.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아늑한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갤러리 제공